

중세 무용의상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13C~15C 중심)

임 상 임* · 김 경희**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A Study on Formality the Dancing Costume of Middle Age (Focus on 13c~15c)

Sang-Im Im* · Kyung-Hee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2002. 6. 24 투고)

ABSTRACT

This study as one of a series of systematic studies about dancing costumes will compare the costumes of the middle age with their normal style of dress. In brief, this study wants people to know about middle age dancing costumes and understand the culture in the middle ages.

It was found that people's everyday clothes in the middle age such as Surcot, Surcot-ouvert, Pourpoint, Houppelande were used as dancing costumes. They were, however, changed from the public's clothes which were tight and long. Rather than wearing costume over others, dancers wore costumes which had slits on skirt or sleeves to increase motion. With the Wild Man of the Wood's which only nobles used for their dancing costumes, costumers highlighted the beauty of human body.

There were various costume materials used in the middle ages like silk, cotton fabrics, linen or brocade. These materials were used for Surcot and Pourpoint as dancing costumes. The naturalness of nature or geometric patterns also was expressed on the costumes. Further about those patterns, because the development of stained glass, vivid colors were used especially red, light green, blue etc.

As for the hair styles used, dancers let their hair down and put a jeweled crown over their hair.

In summation, dancers wore the same clothes that normal people did, but the costum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social status and gender. The costumes of ordinary people's were based upon ordinary clothes that moved and emphasized the dynamic motion. On the other side, the court dancers' costumes were very fancy, symbolizing a measurement of nobles' from wealth and authority, as well as an expression of a sense of beauty. The main features of middle ages follows. : To emphasize vitality, there were long slits on the side of skirt. Hair decorations and jewels are more used than in the ancient age's.

To hide a dancer's social status, they could use a mask. Wild Man of the Wood's was used for the body makeup. All these features of the dancing costumes must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the dance in the middle age's.

Key Words: Dancing Costume(무용의상), Middle Age(중세), formality(조형성).

I. 서 론

무용은 움직임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리듬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조화롭게 행동하는 동작¹⁾이며 동서고금을 통하여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 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용의 형태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으며 무용이 있게 된 동기와 목적 또한 다양하다.

무용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며 한 시대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발전되어 왔다. 고대 원시인들은 무용을 신과 통하는 언어로 믿었고 기원의 상징이나 소망의 뜻으로 또는 제례나 의식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고대 문명시대에 이르러 무용은 주술적 역할과 더불어 종교적, 또는 체육, 예술의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나아가 본능적 즐거움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무용이 중세로 접어들면서 기독교 사상에 의해 죄악시되어 바야흐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²⁾, 중세기 특유의 시대반영 적 춤인 '죽음의 춤'이 등장하게 되었다. 중세에 발생한 무용의 형태는 '죽음의 춤' 이외에 '무도광', '성 비타스의 춤', '타란텔라(Tarantella)'와 '포크댄스', '궁정무용' 등이 있다. 중세 무용은 당시 무용탄압으로 종교적 색채가 짙은 무용이 쇠퇴한 반면, 오락을 추구하는 세속무용이 민중사회는 물론 귀족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까지 계승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이다.

무용의상은 무언의 언어로서 개인의 생각이나 말을 상징하는 표현 수단이다.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홍무용을 위해서 직업무용수의 뉘의(紐衣)를 최초의 무용수의 복장으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³⁾, 그리스의 연극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

는데 상징적 마스크와 함께 의상이 사용되었다. 현대 무용에 있어서도 무용의상은 무용스타일을 나타내주고 작품의 성격을 표현해준다. 따라서 고대 무용의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무용의 형태를 개발한 중세의 무용에 있어서도 의상은 무용의 목적이나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무용의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고대 무용의상의 연구에 이어서 현대 무용의상의 발아점이 되는 중세 무용의상의 조형성에 대해서 고찰함으로써 중세 무용에 표현된 무용의상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중세의 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13세기부터 15세기를 중심으로 중세 사회와 중세 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세 무용의상의 조형성을 실루엣과 슬랙스, 스커트 길이를 통한 활동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색상과 재질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표현성으로, 두식과 장신구를 장식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며 아울러 무용의 형태에 따른 무용의상의 조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과 사진, 박물관 도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헌 고찰하였다. 그러나 무용의상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II. 중세 무용 및 무용의상의 특징

1. 중세 무용의 특징

중세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이 고전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사이에 끼어있는 암흑과 야만의 중세시대란 뜻으로 사용한 아래, 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르네상스 이전 약 천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중세 초의 암흑과 이른바 문화 부재의 시기는 대체로 6~10세기에 국한되며, 13세기를 전후해서는 독특하고 우수한 중세⁴⁾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세는 무용의 암흑기라 말한다. 왜냐하면 중세는 사회·정치·경제적으로 기독교와 봉건제도라는 두 세력의 지배로 끊임없는 전쟁과 휩박, 기근 등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 무용은 도덕적으로 퇴폐 한 로마 사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로마 무용은 이집트 무용과 그리스 무용을 모방하는데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형식을 갖는 그리스의 무대 무용을 더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중세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세 무용은 중세 사회의 시대적 경향에 의하여 예술성을 갖는 무용이 아닌 오락적 성격을 띤 무용으로 발전하게 되며, 기독교의 무용, 농민의 무용, 귀족의 무용 그리고 죽음의 무용 등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

1) 기독교의 무용

초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무용은 신(神)을 섬기는 수단이었는데, 신도들이 성가와 무용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종교의 축일(祝日), 제일(祭日),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장지 등에서 춤을 추었던⁵⁾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철야를 한 후 춤을 출 때에 남녀를 따로 마주보게 한 다음 교대로 노래를 부르게 했으며,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돌아오고 때로는 좌우로 움직였다가 한 줄로 서기도 했다. 초기의 기독교 무용은 종교적인 예배 수단이었던 것이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종교적인 무용으로 변질되었고, 교회 목사들은 종교 무용과 무용에 강한 반발을 하였다. 목사들은 모든 불경의 원인은 몸에 있고, 몸을 이용한 무용은 자신의 정신적 사상에 저급한 문제로 바뀌어, 자신과 하느님 사이에서 오는 숭배 심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용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교회가 무용에 필연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로마의 멸망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교도의 축제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용을 이용하여 교회를 승배 할 수 있도록 무용을 받아들인 것이며⁶⁾,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유럽이 새로운 카톨릭 국가를 형성하고 안정기에 들어서자 교회는 단합을 통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예술을 동원해 포교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초 교양도 없는 대중은 예배 자체보다는 오락적 추구로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으며⁷⁾, 이러한 대중을 위해 이교도의 풍습을 교회의 축제일로 정하여 그들을 자연스럽게 포교하였다.

교회의 축제에서 행해지던 중세 무용의 대표적인 것에는 집사디콘의 축제무용, 목사의 춤, 소년 합창단의 춤, 부집사의 춤 등 4종류가 있다.

집사 디콘의 축제무용은 성스티븐의 기념일에 추는 춤으로 다양한 형태의 울동과 노래와 춤, 계임을 하였고, 목사의 춤은 성 요한절에 목사들이 추는 춤을 말한다. 그리고 소년 합창단의 춤은 12월 28일 아기날에 추는 춤으로, 다양한 놀이와 울동 잔치 등을 하면서, 어린이 추기경을 선출하였다. 또한 부집사의 춤은 할례제 때 아래 계급의 성직자들이 높은 계급의 성직자들을 풍자하여 추는 춤으로, 이때는 가면과 가장을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예배식을 풍자적으로 개작한⁸⁾ 재미있는 춤의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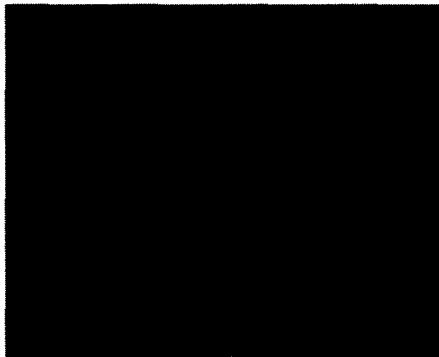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예배수단으로 무용을 사용하여 노래와 울동, 잔치가 같이 행해졌으나, 후에는 교회축제에서 무용이 행해짐으로서 중세의 무용은 교회에 의해서 더욱 발전하게 된다.

2) 농민의 무용

중세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암흑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전국시대이자 봉건시대였으므로 농민들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남자는 약 200년간에 걸친 십자군전쟁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으며, 농민은 영주에게 수확의 태반을 빼앗겨야 했다. 또한 혹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자 사회, 경제는 쇠퇴하게 되어 농민의 부역은 더욱 강화되었다.

농민들은 계급적인 속박과 현실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춤을 추었다<그림 1>. 처음에는 무용금지령 때문에 공공연하게 무용

을 할 수는 없었으나 교회측에서도 민중들의 무용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진지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결혼식, 추수감사절 날 등 축제일 외에 평소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⁹⁾ 남녀노소 구별 없이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그림 1> 농부들의 춤(세계무용사,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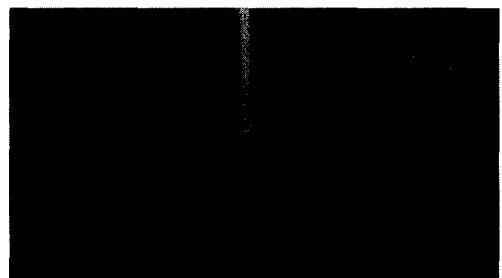
이들 농민의 춤은 상당히 난폭하고 억세며, 동작이 크고, 가끔은 성(性)과 세속적인 것을 솔직히 표현하였다. 대개 이들의 무용은 집단적, 전통적이고, 자율성도 없었으며, 동작 중에 높이 뛰는 종류가 많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지배세력이 가한 압력에 대한 반항의 표현으로¹⁰⁾ 보이며, 농민 무용의 대표적인 형태는 춤추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긴 사슬을 이루어 춤을 추는 라운드 댄스이다.

3) 귀족의 무용

봉건제도가 정착되면서 영주를 위시한 귀족계급들의 사교를 위해 무용이 요구되었다. 귀족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기사들은 초기에는 신체훈련에만 몰두하였으나 무용이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부터 점차 기사교육의 중요한 부분¹¹⁾을 차지하였다. 기사 교육의 단계는 시동(page)으로 7세부터 14세까지, 종자(squire)로써 14세부터 21세까지 보낸 후 성대한 의식을 치른 다음 정식으로 기사가 된다. 귀족은 기사로서 귀부인의 상대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사들의 교육에 있어서 무용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귀족들의 무용은 농부의 춤을 모방한

형태였으나, 귀족의 의상을 착용하고는 농부들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따라서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춤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귀족들이 초기에 행한 춤의 대부분은 바세(Basse)로, 이는 마루에서 발을 떼지 않고 움직이며 동작이 작다는 뜻을 의미하였다.

농부들의 춤이 거칠고 동작이 큰 것에 비해서 귀족들의 춤은 바닥에서 발을 떼지 않는 글라이딩(gliding)과 턴닝(turning)스텝이었고, 농민의 무용이 짹을 이루거나 남녀간에 보다 자유로운 대형을 이룬다. 귀족의 움직임이 없는 무용의 형태는 초기에 머물고, 후에는 귀족과 농부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된 형태로 변화하였다<그림 2>.



<그림 2> ring-dance (The Histroy of Dance, p. 121)

4) 죽음의 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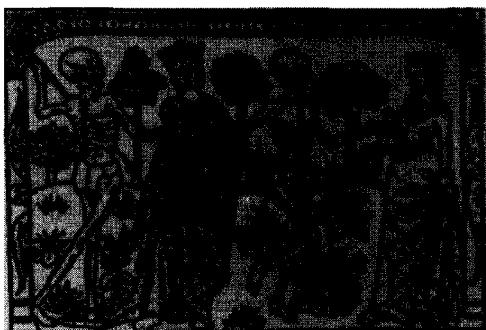
중세 무용에 있어서 특이한 춤의 형태는 죽음의 춤이며, 이러한 춤의 형태에는 ‘무도팡’, ‘무도병’, ‘타란텔라’ 등과 같은 광기적인 춤의 형태가 있다. 펜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게 된 죽음의 춤은 기아, 전쟁, 질병의 만연으로 비참한 심신 상태에 빠져 있던 민중이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한 것¹²⁾에서 발생한 것이다. 죽음의 춤은 현실에서 오는 고통과 긴장을 분출함으로써 마음을 조절하였고, 사회를 풍자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시위의 한 표현으로 이용되었다.

죽음의 춤은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等地로 번져 갔다. 이 춤의 형태는 해골과 닮은 색칠한 노르스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죽음의 神이 되어 저 세상으로 사람을 불러 가는 것¹³⁾<그림 3>을 풍자한 것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오랜

전쟁, 페스트,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이 정신적 위안이 되었던 무용을 금지하자 변태적으로 발생한 이상 현상¹⁴⁾이라 하겠다.

무도광은 11세기와 13세기에 유행을 하였던 춤이며 고통스러운 피로로 죽을 때까지 한 번에 며칠씩 온 거리와 마을을 춤추며 돌던 광란에서 자극을 받은 것¹⁵⁾이다. 무도광과 같은 춤은 무절제한 정신 상태에서 자기의 육신을 혹사하면서 폐락을 얻는 광란의 춤으로 엑시타시(Ecstasy)¹⁶⁾¹⁷⁾춤이라고 했다.

무도병은 센트 비스덴스(St. Vitus Dance)라고 하며, 센트 비스덴스는 고뇌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춤을 출 때는 남녀노소가 모두 광적으로 날뛰면서 빙글빙글 돌고 몸을 뒤틀고 소리를 지르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림 3> 죽음의 춤 (The History of Dance, p. 40)

타란텔라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춤이며, 이 춤은 타란텔라 거미에 물려 생긴 발작이 춤의 형태로 변화 한 것이다. 이 춤은 구경하는 사람도 전염되어 같이 춤을 추게 된다는 것으로 현재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에 타란텔라는 민속 무용으로¹⁸⁾ 남아 있다.

이처럼 중세 무용은 고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무용으로 중세의 사회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오락성과 염세적인 특성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III. 중세 무용의상의 조형적 특성

1. 기능성

1) 실루엣

고대의 무용의상은 비교적 많은 노출과 아름다운 장신구에 의해 표현되고 있지만 중세에는 무용의 형태가 다양하였듯이 무용의상의 실루엣도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13세기 춤추는 무희의 모자이크에서는 짧은 스모코나 꼬떼론의 평민복과는 달리¹⁹⁾ 좀 더 화려한 형태의 의복을 볼 수 있는데<그림 4>, 이 모자이크에서는 소매가 꼭 끼는 튜닉 위에 진홍색(ruby-red)의 꼬뜨를 입었다. 스커트 옆 부분의 절개와 늘어뜨린 소매 부분이(hanging sleeve) 흰 담비 털로 선 장식되어²⁰⁾, 무용 의상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으며, 스커트 옆선의 절개는 활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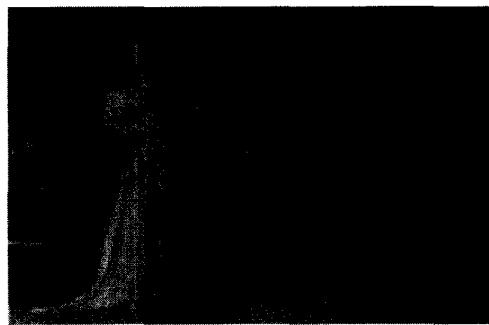
<그림 4> 13세기 춤추는 무희 (서양 복식문화사, p. 154)

14세기 야외에서 추던 운무(輪舞)<그림 5>에서는 여자들이 꼬뜨(cotte)와 쉬르코(surcot)를 착용하고, 남자는 꼬뜨와 호즈(hose)를 착용하였다. 타이트한 소매는 남녀의 형태가 같으나 <그림 6>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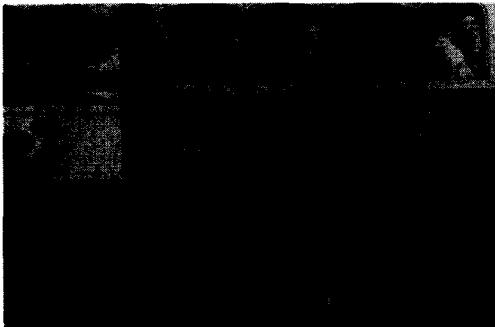
튜닉 위에 착용한 블리오는 비교적 옷자락이 넓고 양옆에 트임이 있어 다리의 움직임에 여유 있어 보인다. 또한 궁중무용에서 여자들은 꼬뜨를 착용하였는데 하이 웨이스트에 금장식을 한 벨트를 하여 스커트 자락이 더욱 풍성하게 보이며, 가운데 있는 남자는 지퐁(gipon)을 입고 그 안에 쉐엥즈와 쇼오쓰(chausses)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6>. 남자들은 소매 형태를 슬릿하거나 행깅슬리브를 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우뿔랑드를 입고 쇼오쓰를 착용하여<그림 7>, 상체를 밀착시킨 실루엣을 강조하였으며, 꼭끼는 쇼오스는 인체의 유연한 선과 활동성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그림 5> 중세 때 야외에서 추던 윤무 (Dance in its Time, p. 347)



<그림 6> 중세의 궁중무용 (무용의 줄거움,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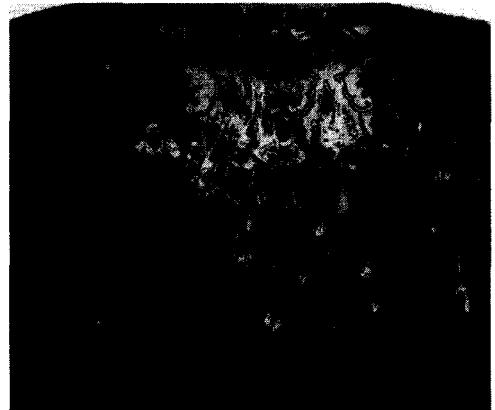


<그림 7> 축제 때의 무용 (The History of Dance, p. 116)

또한 중세에는 동물 가면을 쓴 형태의 무용의상을 볼 수 있으며<그림 8>, 특히 귀족 무도회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그림 9>.



<그림 8> 중세의 오락무용 (The History of Dance,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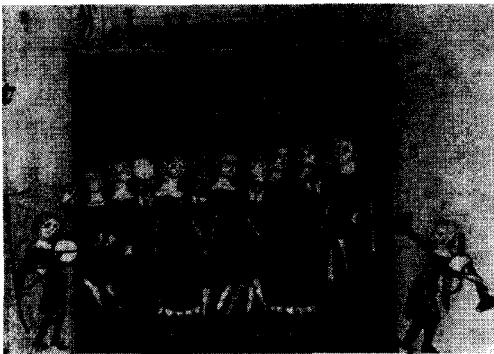


<그림 9> 뜨거운 무도회 (The History of Dance, p.117)

<그림10, 11>은 종교적인 무용의상으로, <그림 10>에서 보여지는 어릿광대의 모습은 고리에 발을 끼워 꼭 끼게 착용한 호즈에 엉덩이와 앞 부분만을 가린 로인클로스의 형태는 머리에서 어깨를 감싸고 팔꿈치까지 내려서 착용한 망토와는 매우 대조적인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11>은 어깨까지 드러나게 깊게 판 네크라인과 풍성한 스커트의 폭은 활동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아름다움은 꼭 끼는 소매와 행깅슬리브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스커트 자락의 풍성함은 13세기 종교 무용의상인 <그림 12>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허리에서 느슨하게 띠를 묶은 상의의 풍성함은 타이트한 소매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10> 어릿광대 (발레와 복식문화사, p. 79)



<그림 11> 캐롤을 추는 사람들 (발레와 복식문화사, p. 10)



<그림 12> 다윗왕의 무용 (The History of Dance, p. 35)

<그림 13>은 14세기 기독교 무용의상을 표현해주는 그림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이 박스형이며, 가운데에 있는 여인만이 로마의 토가를 걸친 듯 앞으로 당겨진 자락의 주름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다. 천사들의 무용인 <그림 14>는 소매가 없이 전통 둘레가 깊게 파여져 있고, 매우 풍성한 주름이 여러 겹 겹쳐서 형성되어 있어 <그림 13>의 실루엣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인체를 가리고 움직임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특성이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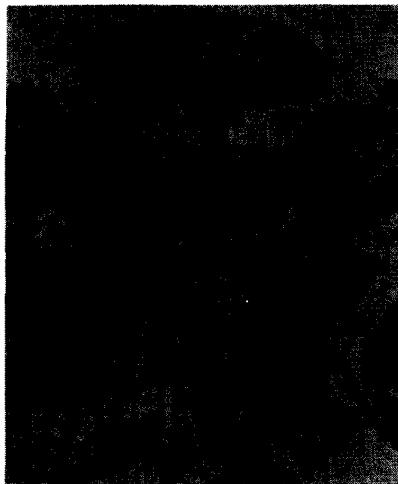
농민의 무용은 <그림 1>에서 여자들의 상체가 꼭 맞고 스커트 폭이 풍성한 꼬뜨와 꼬파르디(cotehardie)를 착용하여, 상체와는 달리 매우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옷으로 감싸여져 있다. 남자들은 매우 여유 있고, 풍성한 실루엣인 후드 달린 펠리콘(pelicon)과 호즈를 착용하여 풍성한 실루엣으로 몸의 움직임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춤추는 세 여인 (The History of Dance, p.35)



<그림 14> 천사들의 무용 (The History of Dance, p. 38)



<그림 15> 농부들의 춤 (세계무용사, p. 63)

농민들이 캐를을 추는 모습인 <그림 15>는 상체가 꼭 낀 형태의 로브에 꼬따르디를 착용하여 전체적으로 A라인(A-line)의 실루엣을 이루고 있으며, 남자들은 쇼오쓰에 무릎길이의 풍성한 망토를 착용하고 허리에 띠를 매기도 하여 계급적인 속박과 억압받은 현실을 난폭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무용형태를 무용의상에서는 활동성을 더욱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착용되었다.

귀족무용에서는 소매통이 좁고 텔 장식된 남자들의 우뿔랑드와 트레인 된 거대하고 긴 가운, 그리고 장식적인 헤드드레스는 귀족들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²¹⁾. 그러나 무용 할 때 착용한 여성들의 의상은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고 허리를 꼭 끼게 한 스타일로 소매를 여러 개로 슬릿하여 손의 움직임에 따른 율동 감을 강조한 형태를 착용하였다. 또한 스커트 자락은 여러 개의 고어를 이용한 넓은 폭으로 움직임을 강조하였으며<그림 9>, 특히 아마섬유를 이용하여 온 몸을 감싸 육체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한 것은 <그림 15>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꼬따르디를 길게 늘어뜨려 옷자락의 뒤쪽이 땅에 끌리도록 하였으며, 스커트의 폭은 매우 풍성하여 꼭 끼는 상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매의 형태는 손목까지 꼭 끼고 끝은 프릴을 끝단에 대어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남자들은 꼭 끼는 상의에 허리띠를

묶고 하체는 더욱 몸에 꼭 끼게 하여 남자들의 무용의상은 전체적으로 긴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무용의상은 스커트의 옆선에 슬릿을 이용하여 그 위에 단비 텔을 대어<그림 4> 다리의 움직임에 따른 율동 미를 더욱 아름답게 강조하였으며, 부풀린 가슴아래에서 엉덩이 선까지는 꼭 끼고 그 아래는 여러 장의 고어로 처리한 스타일에 머리에서부터 내려뜨린 끈이 온몸을 감아서 흐르듯이 묶은 것은 무용을 하는 인체의 흐름을 유연하게 보이도록 표현하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중세 무용복의 또 다른 특징은 귀족들이 인체의 실루엣을 보여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몸의 형태가 훤히 비치는 아마조각으로 만든 옷을 착용하여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긴 망또로 중요한 부분만을 가려서 보일 듯 말듯하게 표현하여<그림 9, 16> 종교, 농민 무용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6> 귀족의 무용 (The History of Dance, p.117)

죽음의 무용에서는 온 몸을 해골로 분장하여 귀족 무용의 보일 듯 말 듯한 인체의 아름다움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화려한 문양의 꼬따르디는 상체가 꼭 끼고, 주름이 풍성한 스커트를 손으로 끌어올린 실루엣은<그림 3> 해골의 형태와는 상반된 느낌이 표현되고 있다. <그림 17>은 슬래쉬 장식을 한 레그오브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에 상체는 꼭 끼고 풍성한 스커트를 착용한 여자와 옆에 있는 넓은 소매통에 무늬가 있는 옷감을 착용한 남자 또한 해골은 형상과는 대조적인 풍성한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

중세의 말기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옷자락의 전성기였다. 이러한 복장을 하고는 확장된 춤을 추는 것이 불가능함으로²²⁾, 특히 스커트 자락에 슬릿이나 고어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슬릿은 다리의 움직임을 잘 드러나 보이게 하였으며, 이는 노출에 의한 인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길이

13세기에는 튜닉이나 꼬뜨의 과장된 커프스가 사라지고 손목 길이의 소매는 타이트하고 커프스 부분도 꼭 맞아 활동에 편리한 형태로²³⁾ 변하면서, 무용의상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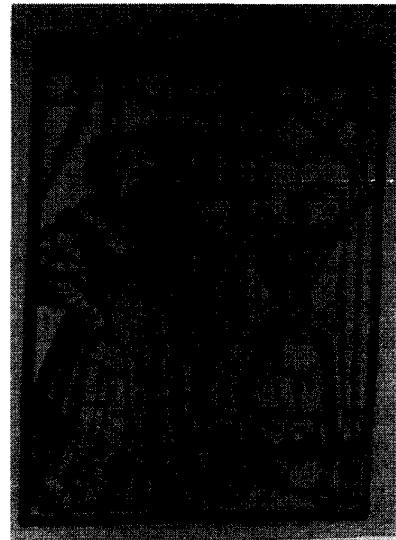
14세기 중반 무렵부터 상의인 뿌르쁘웨(pourpoint)과 하의인 호즈가 서로 어울려 착용됨으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스커트를 착용하여 의복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가²⁴⁾ 생겼고, 남자들은 주로 꼬파르디를 입고 걸에는 쉬르꼬나 맨틀을 걸쳤는데,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길이가 짧아진 것으로 발목 길이의 로브는 사라지고 무릎 위로 올라가 더욱 활동에 편리한 형태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의복의 변화는 농부들의 의상에도 나타나고 있다<그림 10>.

<그림 15>는 호즈 위에 로인클로스 형태를 간단히 두른 것으로 다리의 움직임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며, 모자가 팔꿈치까지 연결된 망토는 날씬한 두 다리의 움직임과 대조적인 느낌을 준다.

14세기 여자의 꼬뜨가 좀 더 길이가 길고 우아하게 표현되었다²⁵⁾. <그림 18>은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여성스러운 네크라인과 풍성한 스커트 끝단, 그리고 손목에서 나뉘어진 여러개의 슬리브 자락은 무희의 움직임이 더욱 아름답게 표현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15세기에는 14세기 스타일이 그대로 유행하였으나 슈미즈, 호즈에 의해 하의가 정리되고 그 위에 뿌르쁘웨이나 우뿔랑뜨를 착용하여 상의의 길이가 매우 짧아지고 하의가 몸에 꼭 끼어 남성미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그림 7, 16>, 여성들은 쉬르꼬와 더불어 꼬파르디를 착용하여 가는 몸통과 완만한 스커트의 특징을 이루었다. 스커트는 풍성하고 왕족과 귀족부인용은 옷자락이 바닥에 끌릴 정도

였으므로 몸체는 가늘고 길이는 길게 되었다<그림 8, 18>.



<그림 17> 죽음의 무용 (세계무용사, p. 66)



<그림 18> 악사와 무희 (The History of Dance, p. 115)

종교 무용에서 표현된 의상은 전체적으로 발목 길이로 긴 길이이지만<그림12, 13, 14>, <그림 10>의 어릿광대는 가슴둘레 길이의 망토와 엉덩이 길이의 하의가 무용 동작을 하기에 매우 용이한 길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은 중세 말기의 꼬 다르디와 꼬뜨를 착용한 남녀가 손끝을 맞대고 춤을 추는 것으로 무릎 위의 길이에서 발목까지의 길이로 다양한 모습이며, 소매의 형태도 손목까지의 길이로 꼭 긴 스타일에 늘어뜨린 행깅슬리브가 동시에 존재하여, <그림 14>의 소매 없는 천사 무용

복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다른 모습이다.

농민들의 무용의상은 <그림 15>의 경우에서처럼 여자의 스커트가 발목길이이고, 소매는 겉어울려 팔꿈치 길이인 형태와 손목 길이인 형태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은 남자들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남자들은 망토를 착용하여 무릎길이인 상의와 조끼 차림의 허리길이 등 옷 길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의도 무릎길이와 종아리 길이 등으로, 상당히 자유스럽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그림 1>에서 앞자락은 손으로 끌어올리고 뒷자락은 땅에 끌리는 형태로 소매는 모두 손목 길이에 약간 여유가 있는 형태이다. 남자들은 꼭 끼는 호즈에 앞과 뒤로 넘어가는 옆선은 인체의 곡선과 어우러져 다양한 길이의 느낌을 준다.

<그림 7>은 귀족 무용의상의 길이를 잘 표현한 것으로 여자의 경우 스커트의 끝자락이 모두 끌리는 모습이며, 엉덩이 부분은 매우 풍성하고, 스커트 끝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꼬따르디를 착용하였다. 앞 뒤 네크라인의 선 장식은 슬릿된 남성들의 다양한 소매 길이와 조화를 이루며, 몸에 꼭 끼고 살짝 비치는 아마다발은 여성의 매력적인 부분을 강조하였고, 걸옷을 어깨 위에 걸쳐 땅에 길게 늘어뜨려서 만든 주름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림 16>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남자의 경우 상체는 엉덩이 길이이며, 꼭 끼는 호즈를 착용하고 있어, 엉덩이의 파이프 오르간 주름과 다리의 딱 달라붙는 호즈는 매우 대조를 이룬다. 또한 소매의 길이는 팔꿈치 길이에서 손목길이까지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아마섬유로 분장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림 7, 16> 발과 손, 얼굴을 제외하고는 모두 섬유 다발로 가리워져 있어 인체의 아름답고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죽음의 무용 시 착용되었던 여성의 스커트는 주름이 많고 땅에 끌리는 길이로 일반 귀족들이 착용한 형태이며 <그림 3>, 여기에 손목 길이로 꼭 끼는 소매와 그 위에 풍성한 소매를 겹친 스타일은 스커트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용의상은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옆의 인체와는 매우 달라

죽음의 무용에서만 표현되는 독특함을 느낄 수 있다.

2. 표현성

1) 소재

중세는 십자군 원정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서구의 학문, 예술, 산업 등이 13, 14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²⁶⁾ 되었고, 이러한 산업발달은 직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십자군에 참가한 병사들은 동방의 뛰어난 기술로 짜여진 견직물, 문 직물, 금란 등을 유럽에 전파시키기 위해 그 제조법²⁷⁾을 익혔다.

특히 고딕시대인 중세 말기에는 벨벳이나 브로케이드 등의 고급 직물이 귀부인들에 의해 환영받았으며, 벨벳과 세틴은 속옷감으로 쉬폰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호감을 주는 직물이었다.

꼬따르디는 견, 마, 모피, 면직 등 고급옷감을 사용하여, 마로 된 속옷 위에 바로 착용하였다. 뿌르쁘웽은 심을 넣고 누빈 옷으로 겉감은 상아색의 실크로 사자와 독수리가 번갈아 있는 무늬를 사용하기도 했고, 우뿔랑드는 견직물, 벨벳, 얇은 모직, 금직 등 값비싼 고급직물로 가슴에는 허리띠를²⁸⁾ 하여 견직물이나 얇은 모직의 부드러움이 꼭 끼는 상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으리라 생각된다.

직조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직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양이 무용의상에 사용되었다. 이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잠자리 모양의 자연무늬와 기하학적인 무늬의 의상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림 7>에서는 사이사이 다른 색의 실을 사용하여 직조한 형태가 잘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중세 무용의상은 화려한 브로케이드, 벨벳, 실크 등 여러 가지 직물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며, 부드러운 마 또는 견으로 만든 슈미즈는 몸체를 더욱 가늘게 보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종교 무용의상에 사용된 소재는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그림 10>과 <그림 12>는 같은 종교 무용의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릿광대의 의복은 단순한 형태에 면과 마 등 소박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그림 12>는 다빗 왕을 등장시킨 무용으로 더

고급스러운 견, 브로케이드 등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그림 14>의 천사들의 무용에서 사용된 부드러운 질감이 <그림 13>에서 사용된 옷감의 느낌과 다르다는 것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는 계급간에 이용된 옷감의 차별이 무용의상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용의상은 아외에서 추는 무용 즉 농부들이 무용을 할 때 입는 의상과 귀족들이 무용을 할 때 입는 의복이 재질면에서 차이가 있음은 역시 일반인들이 계급에 따라서 의복을 다르게 착용했던 것과 같다. 따라서 농민들이 무용 시에 착용한 옷감은 면과 마가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귀족들의 일반의상에 이용되던 고급 직물은 무용의상에서도 이용되어, 화려한 브로케이드와 벨벳, 그리고 실크 등이 귀족 무용에서 특히 많이 이용되었으며, 모피류가 무용의상에서 사용되어 더욱 화려하게 느껴진다<그림 4, 16>. 쉬르꼬뚜베르는 장식적인 결옷으로 고급 옷감이 사용되고 귀금속, 보석, 모피 등 화려한 장식과 좌, 우 색을 달리하여 착용하였던 것처럼 무용의상에서도 슬릿된 부위나 소매 끝단에 그리고 스커트 자락에 모피를 대기도 하였으며<그림 4, 16>, <그림 2>에서 보듯이 좌우 색을 달리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넣은 무용복은 매우 자유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진다<그림 5>.

죽음의 무용에서 사용된 소재는 매우 화려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일반 귀족들이 착용한 의상을 무용 시에 착용되었던 것에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의 무용 시 사용되었던 소재는 화려한 문양이 있는 것과 귀족들의 의상과 같은 실루엣을 이룬 것으로 보아 귀족들의 의상에서 사용되는 견, 브로케이드, 벨벳 등이었으며, 특히 <그림 17>에서는 레이스, 브로케이드 등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2) 색상

스테인드 글래스(stained glass)의 발달은 무용의상의 색상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귀족 무용의 의상에 매우 선명한 색채가 표현되어 죽음의 무용이나 농민 무용에서 어두운 색이 주로 사용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특히 <그림 6>에서 보면

하늘보다 더 푸른 배경을 하고 서 있는 세 사람의 무용의상 색상에서 아주 선명한 빨강과 연두색, 그리고 연보라 빛의 경쾌한 리듬감은 귀족 무용의상의 색상을 표현²⁹⁾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색채는 또한 중세의 해학적인 모습이나 풍자적인 느낌을 표현하려는 무용의상에 이용되었는데 청록색의 꼬뜨, 붉은 색의 호즈, 그리고 흰색과 검정 색의 후드<그림 8>가 동물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과 잘 어우러져 나타나 있다.

또한 쉬르꼬의 변형 형태인 가나체(ganache)는 흰색 걸감에 초록색이나, 빨간색 걸감에 오렌지색 안감 등 여러 색의 조화를 이루었고³⁰⁾, 상류층에서 착용하였던 쉬르꼬 뚜베르는 장식적인 결옷으로 고급 옷감이 사용되었으며, 귀금속, 보석, 모피 등 화려한 장식과 더불어 좌, 우 색이나 모양이 다른 것³¹⁾도 있었다<그림 9>. <그림 11>은 드럼과 백파이프에 맞추어 캐롤을 추는 모습으로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 등 색과 톤의 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종교적인 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상이 무용의상에 사용되었다. <그림 10>의 어릿광대들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모자를 쓰고 빨강과 노란색의 복장을 하여³²⁾ 경쾌한 느낌을 주는 반면 <그림 12, 13, 14>은 빨강, 파랑, 초록 등 원색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종교 무용의상에 사용된 색상이 매우 다양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농민들이 무용을 할 때 착용한 의상의 색은 거의 흰색과 검은색이 대부분이었다<그림 1, 15>. 이는 귀족과 농민의 생활이 재질면에서 차이가 났던 것과 마찬가지였으며, 화려하지 않은 농민들의 의복이 무용의상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귀족 무용복에 사용된 색상은 <그림 6>에서 보여 주듯이, 아주 선명한 빨강과 연두색, 연보라 빛에서 경쾌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색상보다 더욱 밝은 색이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복 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추는 춤의 형태에서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그림 6, 9>, 왕이나 귀족들이 직접 무용에 참가하기 때문에 중세의 무용의상은 더욱 화려하고 아름

다웠으리라 생각된다.

색상은 매우 다양하여 문양을 이루고 있는 색상과 인체에 표현된 붉은 색,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용된 검은색, 흰색 등이 인체와 의복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중세 무용의상에는 화려하고 값비싼 직물 즉, 견, 마, 모피, 벨벳, 얇은 모직 등이 이용되었으며, 다양한 직물만큼이나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3. 장식성

1) 두식

중세 초기에 일반여성들은 머리에 비단으로 만든 두건이나 진주 박힌 망을 썼으며, 견이나 마로 만든 모자나 금속으로 된 관에 보석을 장식하여 사용하였고, 기타 장신구, 향수, 향료 등³³⁾을 사용하였다.

13세기에 들어서 남자들의 긴 머리는 좀 더 실용적이고 우아한 스타일로 변하였으며, 후반기에는 후드에 릴리피프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릴리피프는 15세기까지 계속되면서 벨트에 접어 올리거나<그림 15>, 목 주위에 몇 번 감아 두르기도 했으며, 도넛모양의 터번을 만들어 쓸 정도로 길이가 길어졌다. 또한 샤프롱과 본넷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 모자에 모피, 브로우치, 깃털, 메달 등을 장식³⁴⁾하였다<그림 16>. 13세기에 등장한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젊은 여성인 경우 머리를 느슨하게 땋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 양쪽 목 언저리나 양귀에 말아서³⁵⁾ 정리하였다<그림 7>. 머리 장식으로는 그물모양, 뿔 모양, 터번모양이 있고 샤프롱의 끝을 잡아 올려 전면에 보석을 박아 황소 뿔 같은 모습을 하기도 했다<그림 7, 16>. 또한 장식적인 관을 쓰고 그 위에 베일을 늘어뜨리기도 했으며<그림 18>, 딱딱한 천으로 원추형의 모자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의 베일을 덮어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머리장식이 등장하였다<그림 9, 16>.

또한 후드<그림 5>와 뿔이 두 개 달린 에네모자와 그를 망을 이용한 보석장식을 많이 볼 수 있

다<그림 6, 7>. 특히 <그림 16>에서는 모자의 술장식과 뿔 장식 그리고 헤드드레스와 깃털 장식 등 다양한 두식의 형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독교 무용에서 표현된 머리 장식은 무용수의 머리가 거의 펼친 형태로 헤어밴드, 베일, 모자 등을 착용하였다. <그림 12>에서는 마름모꼴의 모자 형태와 헤어밴드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며, <그림 13>에서는 엄숙한 분위기의 베일을 늘어뜨린 모습을 볼 수 있다.

농민 무용에서는 터번과 후드, 헤드드레스 등이 많이 등장하였다<그림 1, 15>.

헤드드레스는 머리를 두르고 다시 턱을 한번 둘러서 마무리하기도 하고, 앞이마를 둘러 머리를 땋아서 내릴 때 천을 같이 따기도 하였으며, 후드의 뒤틀을 길게 하여 허리에서 묶고 다시 늘어뜨리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머리를 장식하였다. 머리의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모두가 모자를 쓰고 있으며, 두건과 베일 형태의 모자, 그리고 밀짚모자 형태에 긴 술 장식을 하여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귀족의 무용에서는 보석을 이용한 관이나 뿔 장식, 그물장식 등이 많았고<그림 6, 7, 9>, 다양한 의상과 색상만큼 정교한 머리 장식 또한 뾰족한 에네 모자와 함께 매우 특징적이었다. 얇은 헤드 드레스(headdress)와 보석 달린 관, 첨탑형의 에네모, 뿔 달린 모자 등 그 형태가 다양하였고, 때로는 부퍼가 커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모자도 착용하였다.

여성들은 두건이나 진주가 박힌 망을 썼으며, 실크나 린넨으로 만든 모자나 금속으로 만든 관에 보석을 장식하였던 것과 샤프롱이나 본넷에 모피, 깃털, 메달 등을 장식하였던 일반적인 장신구가 무용 의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남자 모자에 과장된 형태의 뿔을 달고, 모자 끝에 길게 술을 장식한 것은 아마도 몸의 움직임을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그림 7, 15>, 머리를 양쪽으로 말아 올린 후 한 중앙에 커다란 보석 장식과 목걸이를 장식한 것은<그림 6> 일반적인 의상에서 사용된 것보다는 더욱 화려하게 보여 귀족들이 무용의상을 장식하는데 매우 관심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죽음의 무용에서는 해골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한

보석 관을 쓰고 춤을 추었다. <그림 17>은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모습으로 머리에 표현된 검은 줄무늬와는 달리 화려한 관과 모자에서 죽음이라는 어두운 느낌과는 전혀 다른 아름답고 행복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2) 장신구

앞이 뾰족한 검정가죽신을 즐겨 신던 13세기와는 달리 14세기에는 신발이 스타킹과 함께 붙어 있어서 없어져 버린 경우³⁶⁾도 있었고 <그림 16, 18>, 두꺼운 실크로 된 신과 수놓은 가죽신으로 부를 과시하기도 했다. 14세기 중엽에 이르러 신발은 대단히 뾰족해지고 길어지면서 무릎에 고리를 고정시켰으며, 부자들은 신발의 앞부분에 6인치는 고래수염으로 보강³⁷⁾하였다. 여자들도 남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가죽으로 만든 끝이 뾰족한 형태의 신발을 신었다.

중세에 착용된 무용 신발은 슬리퍼(slipper)型 <그림 3>과 앵글 부츠(ankle boots) <그림 2, 15>, 그리고 끝이 뾰족한 형태의 뿔렌느(poulaine) <그림 7, 9>가 있다. 끝이 뾰족한 구두는 그 끝이 발가락 앞으로 두 자나 튀어나와 있었다. 몇 사람이 춤을 출 때 이 신발들은 영락없이 희한한 꼴짓거리가 되는 것이었으며, 적어도 그 신발들은 춤추는 사람이 발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돌리는³⁸⁾ 데에 방해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구두의 끝이 뾰족해지자 에드워드 3세는 민첩한 행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정한 귀족이외에는 2인치 이상의 코를 가진 신발을 신을 수 없도록³⁹⁾ 할 정도였다.

그리고 귀족들이 춤을 출 때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히 위해서 가면을 사용하였는데 <그림 4, 8>, 이 가면은 다분히 해하적인 면도 있었고 <그림 9>와 같이 전신을 동물의 형상으로 분장을 하여 무용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몸 움직임이나 그 느낌이 매우 실감나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기독교 무용에 표현된 무용수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끝이 뾰족한 뿔렌느를 착용하기도 했으며 <그림 12>, 맨발로 춤을 추는 모습 <그림 10, 14>에서는 현대적인 느낌마저 듦다. 대부분 <그림

11, 13>의 경우에는 신발을 착용하였으며, 장신구는 무용을 하기 위한 소도구의 사용 이외에는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았다.

농민 무용에서 착용한 신발은 끝이 뾰족한 뿔렌느와 끝이 둥똑한 슈즈를 동시에 착용하였으며, 터번을 이용한 머리 장식에 깃털을 꽂기도 하고, 술장식을 하였다. 또한 허리에 흰색 구슬로 로우 웨이스트 벨트를 장식하는 등 인체에 장식을 하는 것 보다는 의복의 디테일에 보석을 이용하였다.

귀족무용의 장신구로는 신발과 목걸이 허리벨트에 보석 장식한 것 등이 있다. 신발은 비단과 가죽을 이용하였으며 머리에 두른 헤어밴드에 보석과 깃털장식은 매우 화려하였고,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4>.

죽음의 무용에서 착용된 신발은 슬리퍼와 발등에 끈을 묶는 형태였고 <그림 17>, 머리에는 화려한 보석 관을 썼다. 이 화려한 관은 인체에 표현된 뼈의 문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목에는 목걸이를 걸고, 머리에는 그물 망을 장신구로 이용하였으며, 또한 몸에 전체적으로 채색을 한 것은 어느 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죽음의 무용의 특징적인 장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무용, 죽음의 무용, 농민의 무용, 귀족의 무용 등 다양한 무용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의복의 실루엣과, 매우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과 소재는 활동성과 율동미, 그리고 인체의 거짓 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의 무용의상에 이용된 소재, 문양 및 색상뿐만 아니라 머리 장식이나 장신구 등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특히 전신에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춤을 추려했던 귀족들에 의해 무용 의상 뿐 아니라 무용 진보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중세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무용이 잠시 침체기를 맞이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중세 무용 중에서 죽음의 춤은 현재 민속 무용으로 남아있고, 귀족 무용은 궁정무용의 형태로 변화하여 발레의 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무용의상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팔이나, 스커트 끝 부분에 슬릿을 주어 활동성을 부여하였다. 종교 무용의상은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은 박스형의 실루엣에 무릎길이에서 발목길이까지 다양하였으며, 농민 무용의상은 상체는 꼭 끼고 스커트는 풍성하여 활동하기에 편리한 실루엣에 엉덩이 길이에서 발목가지로 다양한 길이가 기능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귀족 무용의상은 발목길이 이상의 길이로 길고 가는 실루엣, 첨두형 실루엣으로 인체의 곡선미를 나타내었고, 특히 아마 다발의 특수한 형태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죽음의 무용에서는 인체의 형태를 그대로 나타낸 실루엣과 상체는 꼭 끼고 스커트는 풍성한 실루엣으로 땅에 걸리는 길이였다. 무용의 종류에 따라 실루엣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무용을 하는 주체의 현실적인 특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미는 무용의상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무용의상은 자연무늬나 기하학적인 무늬 등의 자연스러움을 무용의상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문양은 스테인드글라스의 영향으로 선명한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빨강색, 연두색, 파랑색 등이 무용의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종교 무용의상의 재질은 마, 면, 견, 브로케이드를 이용하고, 빨강, 파랑, 초록, 흰색, 검은색으로 표현되었으며, 농민 무용의상의 재질은 면과 마가 색상은 흰색과 검정 색이 표현되었다. 귀족 무용의상의 경우 브로케이드, 견, 벨벳, 금사, 모피, 아마다발을 이용하여 연두색, 연보라색, 주황색, 붉은색, 갈색, 검은색, 흰색 등이 표현되었고 죽음의 무용에서는 견, 브로케이드, 벨벳의 소재를 이용하여 빨강색, 흰색, 검은색 등이 표현되어 귀족과 농민의 무용의상의 소재와 색상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으며, 죽음의 무용이라는 특수한 무용의 형태와 농민 무용의상에 사용된 색상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농민 계급의 암울한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중세 무용의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늘어뜨린 위에 보석 관을 장

식하거나 헤드ドレス 깃털, 뿐 장식 등으로 머리를 화려하게 표현하였으며, 보석을 이용하여 머리 위를 장식하거나 목걸이를 달아 선명한 의복 색을 더욱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세 무용의상은 무용수의 역할에 따른 무용복의 형태와 장신구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어릿광대의 역할이나 천사의 역할, 또 동물의 형상 해골 등 부분적인 가면이나 전신의 분장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나타내었다. 기독교 무용의상에 이용된 두식으로는 헤어밴드와 베일, 모자가 이용되었고, 방울, 천사날개, 보석 등의 장신구가 장식적인 조형미로 나타났으며, 농민 무용의 장식성에는 헤어밴드, 후드, 헤드ドレス, 밀짚모자, 릴리피프 등이 두식에 이용되었으며, 술 장식과 깃털장식, 그리고 소도구가 장식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족 무용의상이 두식은 에네, 헤드ドレス, 관, 샤프롱, 본넷이 이용되었으며, 단비 털, 보석, 팔찌, 가면, 전신분장 등을 하였으며, 죽음의 무용의상에는 화려한 보석 관과 모자가 이용되었고, 구두, 슬리퍼, 보석장식, 전신분장 등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중세의 무용의상은 신분 차, 성 차가 뚜렷하였고, 농민 무용의상은 동적인 움동이 가능한 활동적인 평상복인 반면, 귀족 무용의상은 귀족들의 부와 권력의 측정 대상이자 미의식 표현의 대상으로 화려한 유해 의상이었다. 특히 스커트 옆선에 긴 슬릿을 주어 더욱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죽음의 무용과 귀족 무용의상에 나타난 전신 분장은 중세 무용의상이 갖는 특징이며, 가면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던 점은 전신분장과 함께 중세 무용을 전일보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양선희 역 (1995). 무용의 역사 1. 서울: 삼신각. p. 18.
- 2) 박의선 (1961). 무용개론. 서울: 보진제. p. 56.
- 3) 임상임, 김경희 (1999). 이집트 무용의상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p. 148.
- 4) 차하순 (1989). 서양사총론. 서울: 탐구당. p. 131.

- 5) 정은혜 (1995). 舞踊原論. 서울: 대광문화사. p. 90.
- 6) Vuillier Gaston (1972). *A history of dancing*. boston: Milford house, INC. p. 47.
- 7) 이근삼 (1980). 서양연극사. 서울: 탐구당. p. 38.
- 8) 배소심, 김영아 (1985). 세계무용사. 서울: 도서출판 금광. p. 60.
- 9) 김정자 (1992). 무용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p. 33.
- 10) 오화진(1987). 무용문화사. 서울: 도서출판 금광. p. 37.
- 11) 배소심, 김영아. 앞의책. p. 64.
- 12) 위의 책. p. 36.
- 13) Margaret Fist Taylor (1967). *A time to dance*.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pp. 97-98.
- 14) 정은혜. 앞의 책. p. 94.
- 15) Joan Martin (1963). *John martins book of the dance*. N.Y.: Tudor Publishing Co. p. 22.
- 16) Ecstasy: 춤을 추지 않고는 못 배기며 춤을 통해 세계와 자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
- 17) Curt Sachs, 김매자 역 (1992). 춤의세계사. 서울: 박영사. p. 309.
- 18) 鄭殷惠. 앞의 책. p. 95.
- 19) 이순홍 외 (1992). 그림으로 보는 서양복식사.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p. 100.
- 20) Milla Contini (1977). *5000 years of fashion*. Milars, Chartwell Books inc. p. 38.
- 21) Richard Kraus & Sarah Chapman (1981). *History of the dance in art and education*. London: Prentice- Hall, International, Inc. p. 59.
- 22) Curt Sachs. *op. cit.*, p. 327.
- 23) J. Anderson Black and Garland Madge (1980). *A history of fashion*. London: Orbis Publishing. p. 71.
- 24) 丹野郁, 原田三郎, 이희연 역 (1982). 서양복식사. 중앙기능개발연구사. p. 82.
- 25) 丹野郁 (1967). 西洋服飾 發達史. 古代, 中世編. 東京: 光生館. p. 203.
- 26) 丹野郁. 앞의 책. p. 193.
- 27) 之井能 (1959). 西洋服飾文化史. 東京: 光生館. p. 48.
- 28) Blanche Payne (1965). *Hisrory of costume*. New York: Haper & Row Publishers. p. 180.
- 29) Mary clarke & Clement Crisp (1981). *The history of dance*. London: Orbis publishing Limited. p. 119.
- 30) Blanche Payne. *op. cit.*, p. 169.
- 31) J. Anderson Black & Garland Madge. *op. cit.*, p. 72.
- 32) *Ibid.* p. 45.
- 33) 백영자, 유효순. 앞의 책. p. 156.
- 34) J. Anderson Black & Garland Madge. *op. cit.*, p. 79.
- 35) 丹野郁 (1967). 西洋服飾發達史. 東京: 光生館. p. 207.
- 36) J. Anderson Black & Garland Madge. *op. cit.*, p. 72.
- 37) *Ibid.* p. 81.
- 38) Curt Sachs. *op. cit.*, p. 327.
- 39) 김옥진 외. 앞의 책. p. 73.